

아르헨보다 낙폭 크고, 다우보다 2배 하락한 코스피

‘고립무원’ 韓경제의 딱한 현실, 증시는 알고 있었다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자

①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설

코스피 14.8%, 코스닥 23.4% 급락
韓, 90년대 日 ‘버블’ 재현 가능성
中경제 의존도 높아 ‘직격탄’ 우려

현재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주도업종 쏠림 심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하락한 것을 보면 한국이 또 다른 리스크에 놓여있음을 짐작케 한다. 증시 하락장의 베틀목이 없다는 점과 중국 경기 동조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다.

◆국민연금, 국내 투자 줄이고 해외로…

3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10월에만 지난 3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4.8%, 23.4% 하락했다. 최근 금융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13.3%)보다도 하락폭이 커고, 미국 다우지수(-7.6%)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하락했다.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에서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렸다.

훨씬 더 높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증시의 베틀목이 되어 줄 수급이 없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우려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이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축소가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결정된 것”이라며 투자 계획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수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 목표를 갖고 자산을 배분하다보니 위험자산을 많이 갖게 됐다”면서 “위험을 어떻게 완화시킬 건지 고민한 결과 글로벌 시장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해 위험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높은 중국 경제 의존도

한국 증시의 본격 하락추세는 미·중 무역분쟁 발생과 함께 시작됐다. 중국과의 높은 경제 연관성으로 향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가 진행될 때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지난 30일 중국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 당 6.9741위안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5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무역분쟁 심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다. 무역을 비롯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와 연관도가 높은 데다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대리) 통화’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역외 시장 참가자들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힘든 위안화 대신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원화에 투자해 헛지(위험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통화가치가 더 높은 쪽으로 향하는 글로벌 자금의 특성상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를 부추길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탈 인터네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것도 차이나 리스크로 꼽힌다.

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MSCI I 신흥국 지수 내 중국 증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한국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며 “한국의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한국의 비중 확대에는 한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면세점 강남시대 선도… 2020년 매출 1조 목표

현대百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3개 층에 특허면적 1만4250㎡ 규모
420개 브랜드 입점… 인프라 뛰어나

현대백화점그룹이 11월 1일 강남 코엑스 단지내에 시내 면세점을 열고 면세점 사업에 첫 발을 들었다. 서울 강북에 집중돼있던 면세점 시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11월 1일 그랜드오픈을 앞둔 현대백화점그룹은 3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현대백화점 면세점 오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10층까지 총 3개 층에 특허면적 기준 1만 4250㎡(약 431평) 규모로 들어섰다.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 ▲인지도 높은 국내외 브랜드 420여 개 입점 ▲차별화된 디지털 미디어 체험 특화 공간 마련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면세점 강남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는 “신규 사업자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면세점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MICE 관광 특구·한류 중심·의료관광 메카등의 풍부한 인프라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면세점’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면세점간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도 증진시켜 국내 면세점 산업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남 코엑스 단지 일대는 관광 인프라나 접근성, 향후 발전 가능성 면에서 면세점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3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현대백화점면세점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황해연 현대백화점 면세점 대표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위부터 시계방향). 10층 라이프스타일관 SJYP 매장과 9층 뷰티·패션관.



수 있는 ‘LG생활건강 통합관’, 슈에무라·랑콤 등 로레알그룹의 메이크업 브랜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이 대표적이다.

10층에는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한 9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된 ‘라이프스타일관’이 들어선다. 국내 아동복 ‘해피랜드 통합관’과 패션 브랜드 ‘SJYP’가 면세점 업계 처음으로 입점하며, 국내 면세점 최초로 ‘알렉산더 맥퀸’ 공식 스토어를 여는가 하면, 막스마라·베르사체 등이 입점된 ‘해외패션존’을 별도로 구성했다.

9층은 국내외 화장품·잡화·액세서리 등의 브랜드 290여 개가 입점한 ‘뷰티&패션관’으로 꾸며졌다. 뷰티존은 설화수, 에스티로더, 임생로랑 등 150여 개의 국내외 뷰티 브랜드로 구성됐으며, 실큰·누페이스·뉴아 등이 입점된 ‘뷰티 디바이스존’이 면세점 업계 처음으로 들어선다. 뷰티 브랜드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도 선보인다. 고객의 피부타입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백화점·아울렛·홈쇼핑), 패션(한섬), 식품·생활(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여행·관광(현대드림투어)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갖춘 그룹의 강점을 활용해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1면 ‘빛폭탄 터지면, 집값…’서 계속

“증시, 2000년경 수준의 어리석음에 가까워 졌다”

주식시장에서도 숨죽이고 있었던 버블(기품) 경계론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 연관성으로 향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가 진행될 때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면 ‘외풍’에 약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실적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코스피 200내 개별 기업 주가의 고점 대비 저점

까지 하락률 분포도 -30~-60% 구간 비중이 75%나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긴 어렵지만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향후 순이익 전망치가 52.4% 낮아질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버블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버블 붕괴가 특별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의 버블 붕괴에서 볼 수 있듯 버블은 ‘유동성 파티’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과도한 부채 팽창도 버블의 원인이 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부동산 버블 확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외환위기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는 은행위기나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